

### 3장 성장 스토리 대 당대 스토리

『외딴방』, 신경숙, 문학동네, ---ifp1592 작성, 네이버지식인,

#### 1. 들어가며

『외딴 방』에서는 시종일관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번갈아 나온다. 그런데 신경숙은 『외딴 방』에서 이런 기법에 만족하질 않고 주로 현재의 사건은 과거시제로 과거의 사건은 현재시제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법을 통해 작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의 사건이 현재시제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작가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삶과 동 떨어진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깊이 연계된 오늘의 사건이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며, 현재의 사건이 과거시제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작가가 현재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과 무관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것과 밀착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결국 이 작품에서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별개의 두 사건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내용개관

이 작품이 보여주는 과거의 사건은 작가의 직접체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경숙이 열여섯 살 때(1978)부터 스무살이 될 때(1981년)까지 겪은 일이, 작가가 성장기에 만났던 이들과 그때 경험하였던 일이, 그 과거 사건의 핵심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농촌에서 살고 있던 주인공은 1978년에 외사촌 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다. 그 뒤 이 들은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원에 다닌다. 주인공의 주경야독하는 큰 오빠와 함께 이들은 가리봉동의 '외딴 방'에 기거하며 구로공단에 자리잡은 동남전기주식회사에 다닌다. 이 시절에 주인공은, 그 시절 가난한 농촌 출신의 여공들이 대개 그랬듯이, 한편으로는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과 고독과 절망에 시달렸다. 말하자면 주인공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모종의 기쁨이나 보람이 아니라 뚜렷한 피로와 짜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런 일상과 싸우면서도 상경의 원천이었던 향학열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1979년부터 그녀는 공장에서의 작업을 마친 뒤에 산업체 특별학교인 영등포 여고로 달려갔던 것이다. 이런 길마저 주인공에게 쉽게 허용되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노조의 탈퇴라든가 평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노조지부장이나 주변 인물들과의 불편한 관계 등 이런저런 부담을 감수하고 힘겹게 선택한 길이었다. 그렇긴 해도 주인공이 소중하게 품고 있었던 문학적 열망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배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런 생활을 하던 79년 봄에 그녀는 회재 언니를 처음 본다. 회재 언니 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동시에 가난한 고독과 절망 속에서 살다 죽은, 혹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다를 바 없는 고난의 일상을 보내야 했던 모든 불우한 젊은이들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로 보인다. 과거속 사건은 결국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든 거니?" 라는 말을 남기고 회재언니가 자살하게 되고 자신이 잠근 방안에서 일어난 회재언니의 죽음으로 외딴방에서 주인공이 탈출하듯 도망감으로써 끝을 맺는다.

한편, 이 소설이 보여주는 현재의 사건은 이 작품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작가가 느낀 것이거나 생각난 것과 그 과정에서 생긴 여러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심적인 내용은 이렇다.

「깊은 슬픔」으로 신경숙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야간학교 시절의 친구가 어느날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시절의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느냐고 작가에게 질문하였는데 이 돌연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한 것이 이 작품의 시작이다. 신경숙은 이 작품을 약 1년 동안 서울과 제주도에서 써가면서 작가가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끝까지 감출 것인가 아니면 솔직하게 토로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가능한 한 진솔하게 드러내기로 결심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현재의 사건의 주 내용이다.

### 3.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과거, 과거형으로 진행되는 현재

작가는 말하길 "내가 안팎으로 좀 강해졌을 때, 안으로 글쓰는 것이 충만해졌을 때 작업을 해야겠다고. 이 작품(외판 방) 시작할 무렵이 비교적 그런 때라고..... 안 보는 척하면서 지나다녀도 실제로는 더 자세히 보게 되는, 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안 보는 척하면서 지나다녀도 실제로는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작가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여기 머무는 동안 내내 그 시간들은 나의 현재일 것'임을 고백한다. - 〈외판방1, p.85〉 그녀가 잡은 서술구조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교차와 긴장속에 짜여져 있다. 그 속의 공통적인 줄기는 글쓰기에 관한 자의식이다. 글쓰기에 대한 성찰은 단순한 사변적 차원을 훨씬 뛰어 넘는다. 아픔의 크기만큼이나 내면적 성찰이 깊었음이다. 좀처럼 화해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던 세월, 서울에 처음 올라와 구로공단의 '외판방'에 살며 공장에 다녀야 했던 그 4년의 기간과 그 기간을 글로 담아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겹겹으로 뒤섞여 나타나는 형식또한 과거의 진실은 현재적인 진실도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가 현재에 정한 문체 - '단문, 아주 단조롭게. 지나간 시간은 현재형으로, 지금의 시간은 과거형으로. 사진찍듯, 선명하게' - 역시 과거의 진실을 보다 현재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가가 못박은 이런 문체야말로 실은 작가의 가슴을 가장 후비는 일이다. 그야말로 자신의 '살을 파내는'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호히 못박은 문체를 작가는 충분히 실현하고 있지는 못하다. 빈번히 나타나는 말줄임표, 말섞임표, 말없음표, 그와 더불어 단점으로까지 지적받는 감상적인 취향의 문장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특성은 작가가 『외판방』에 임하는 자세와도 큰 관련이 있다. 아무리 단호하게 맞서려 해도, '나의 스타일을 버리'고 집을 떠나 보면서까지, 도망치려는 자신을 붙들어가다, 글 앞에 또 과거의 진실 앞에 앉혀 놓았다고 해도 막상 과거를 눈앞에 대하고 앉았을 때의 떨림과 망설임만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회재 언니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진다.

회재언니..... 기어이 튀어 나오고야 마는 이름.

그래 그날 아침 이야기를 하자, 해버리자.

책상앞을 떠나지 말자..... 지금 떠나면 못 돌아온다.

.....떠나지 말자, 떠나지 말자, 떠나지 말자.....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회재 언니는 그야말로 '내게 과거가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자신이 '유난히도 빠르던' 존재이자 '산업역군의 풍속화'적 인물이고 자신에 의해 잠겨진 방 안에서 죽고 썩어버린, '나'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인물이다. 그 상처의 크기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도 도드라져 있는 반면,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의 회재 언니는 모호함을 남긴다. 화자와 외사촌은 '외판 방'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며 그 삶을 임시일 뿐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회재 언니를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그 골목이다. 그곳의 전신주이고 구토물이고 여관이

다. 그녀는 공장 굴뚝이며 어두운 시장이며 재봉틀이다. 서른 일곱 개의 외딴 방들이 그녀, 생의 장소다." - 2권 156쪽 - 라는 대목은 작가의 그런 생각을 잘 반영한다. 이렇듯 회재 언니는 과거 화자의 공장 노동자 시절의 핵심을 상징한다. 어쨌든 작가가 과거를 현재형으로 진행시키고 싶어한 이유는 분명해진다. 특히나 글을 쓰는 입장에서 그녀는 "과거에 정지되어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을 현재속에 되살려 함께 살고 움직이게 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속에 처했던 휘장이 있다면 그걸 밝은 데로 끌어내 빛 속에서 생기롭게 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 작업의 어려움을 고백한다. - 〈창비문화 11.12월호〉 인터뷰에서. 작가가 작품 전면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또한 위와 같은 내면적 필연성과 상통한다. 결국, 현 시점에서 화자의 머리 속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의미있는 먼 과거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현재와 바로 맞닿아 있는 글을 쓰고 있는 시간들은 그 시간 자체로의 의미가 과거를 돌이켜 보는 데에만 있기에 1초 전이라 해도 과학적 잣대에 의해 과거형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 4. 사적인 삶과 역사적 현실

신경숙이 『외딴 방』을 통해 보여주는 사적인 삶의 모든 조각들은 역사적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아픔으로 가리워져 있던 노동자로서의 삶이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지면서 이전 노동 소설의 암울하고 저항적인 분위기가 쉽게 넘보지 못할 경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산업화, 시골 출신들의 도시로의 이주, 고향인 농촌의 삶에 대한 지울 수 없는 향수, 노동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자본 논리의 관철과정, 군사정권의 폭압과 인간적 권리의 침탈, 그리고 학생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등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들이 읽는 이의 맘 속으로 물흐르듯 스며들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이런 주제들을 흥분하지 않고 짐짓 담담하게, 그러나 실은 치열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단히 사실적인 노동현장의 풍경과 그 속에서 꿈을 꾸는 소녀들. 자본의 착취 구조는 이들의 삶에 연속적인 파문을 던진다. 산업체 특별학급을 다니기 위해 잔업거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침내 노조 탈퇴서를 써야했던 일, 따뜻하게 대해준 노조지부장 및 미스리 언니와 옳은 행동을 같이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 이 소녀들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 외에도 고향하는 오빠들의 좌절과 고통, 좁아터진 방 하나에 두 오빠 및 외사촌 언니와 생활하는 괴로움, 생산계장의 성희롱과 폭행, 자신도 모르게 남의 돈에 손을 대 행동 등 하나하나의 가슴 저리는 기억들은 억지가 아닌 세심함으로 전개된다.

사실 화자의 고향생활은 가난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회상에서 그녀의 시골집은 "어느 집보다 음식이 풍부했으며, 동네에서 가장 넓은 마당을 가진 가운데 집이었으며, 장항아리며 닭이며 오리가 가장 많은" 집이었다. 그런데 서울로 오니 단번에 '하층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새로운 삶을 일구려 도시로 나오게 된 것은 절대적인 궁핍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부담 때문이다. 주인공이 고등학교를 가려하자 이제 "셋째 오빠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여동생이 중학생이 되려"는 상황에서 큰 오빠는 고민끝에 주인공을 서울로 데려간다. "어차피 다른 동생들이 서울로 대학을 오면 일찍 터를 잡아 두는 게" (1권 63쪽) 낫다는 이유다.

1960년대 및 7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급속도로 진행된 이농의 원인이 저농산물 정책 등에 따른 가난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도시화.산업화의 물결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 가를 여러모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미덕은, 가난에 쫓긴 서울길에는 향학열로 압축되는 엄청난 삶의 에너르기가 또한 작용하고 있었음

을 놓치지 않는 데에 있다. 물론 주인공의 형제들이 모두 그 향학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아들 아닌 딸이 대학에 간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의 에너기가 당대 사회·정치적 상황의 뒷모습으로 인해 위협당하는 모습은 개인적 체험과 교차시켜 작가의 고유한 빛으로 재생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편, 작가의 말대로 이 작품은 소설과 자서전의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기에 단지 기억만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작가는 자신이 속해 있던 과거 삶에 소설적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 예로 화자가 기억하는 당시의 처음 일당은 "칠백 얼마이고 3개월이 지나 천이백 얼마의 돈이 되는데", 기금 그 기억을 의심하면서 78년도의 노동 상황을 이리저리 알아보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당시 여공들은 "중식비와 교통비를 제하면 하루 일당은 5,6백원에 불과하여 월평균 임금은 1만 9천 4백원에 불과" (1권 79쪽) 한 것이었다. 또 급우의 하나인 김상옥이 다닌 회사가 별인 유명한 'YH사건'의 기록을 찾기 위해 신문사 조사실을 찾아다녔으며 (1권 243쪽), 지부장 유채옥의 부당해고가 발단인 동남전기 쟁의과정 묘사의 상세함도 기억에만 의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작가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걸친 미혼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에 대해 사실적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의해 그네들의 삶의 애환은 더욱 호소력을 갖는다.

## 5. 맺음말

사실 읽기 편하다는 잔머리로만 이 소설을 선택해 놓고 내내 후회해 왔었다. "이 글은 사실도 픽션도 아닌 그 중간쯤의 글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이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한 작가의 말처럼 어쩌면 한 개인의 일기와도 같은 글에 대하여 어떤 나 자신의 의견을 보탠다는 것이 진정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작가의 자서전적인 성격이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소설은 읽는내내 마치 영화를 보는것처럼 놀라우리만치 사실적인 느낌을 던져주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신경숙의 단점으로까지 지적되곤 하는 특유의 문체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신경숙의 문체는 말더듬의 문체이다. 말더듬의 문체는 말을 하되, 말의 행위적 자질, 즉 목표를 지연시킨다……그의 말더듬은 표현을 얻지 못한 불구의 말이라고, 표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그렇게 애태우는 말이라고," - 〈타인의 아이를 향한 꿈. 정과리〉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후 일련의 소설(이 후에 발표된 기차는 7시에 떠나네등)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시대인식은 읽는 이에게 지금까지의 선동적이고도 계몽적이었던 노동소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게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듯이...

##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 김진경, 문학동네

여기, 낮에 잠을 자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일어나 일상을 시작하는 이상한 나라가 있다. 이 이상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제 경제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지구 반대쪽 나라'의 시간에 맞춰 표준시를 변경해 하루아침에 낮과 밤을 뒤바꿔 버렸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집중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일명 ‘공부 잘하는 기계’로 불리는 시계모자를 쓰게 한다. 해가 지면 아이들은 투구처럼 생긴 시계모자를 쓰고 전쟁터에 출전하듯 학교에 간다. 하지만 시계모자가 몰아가는 경쟁의 세계를 거부하는 기우, 신지, 지만, 인수, 세나는 시계모자 착용을 거부하고,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특수반으로 격리되어 교육 현장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기우를 중심으로 특수반 아이들은 반시계모자 카페를 만들고 시민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계모자 의무 착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와 헌법 소원을 진행하여 승리한다. 하지만 리더격인 기우가 주변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시계모자를 쓰게 되고, 반시계모자 세력은 큰 타격을 입는다. 시계모자를 쓴 지 얼마 안 되어 기우는 집중력을 키워준다는 ‘강화학교’로 가게 되지만, 곧 탈출하여 ‘지하도시’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노숙자들이 지하철 폐간 노선에 모여 들며 만들어진 지하도시는, 시계모자 시대의 실패자들이 격리된 채 살고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그 지하도시에서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 강화학교 탈출 학생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억압에 대항하고, ‘지하도시 통신’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교육 현실과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퍼뜨려 가고 있다. 기우는 다른 강화학교 탈출 학생들과 함께 지하도시에 머물며 다시 범시민세력의 연대의 불씨를 지핀다.

강화학교의 정체와 기우의 행방을 알게 된 특수반 친구들은 다시 기우를 중심으로 뭉쳐, 학교에게 시계모자 작동의 비밀을 퍼뜨리고, 지하도시 지휘부를 색출, 공격하려는 정부 작전의 전모를 캐내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결국 지하도시가 정부의 공습을 받아 위기에 처하자, 기우는 한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자신의 인터넷명을 딴 ‘이카루스 통신’ 방송을 통해 집중력 강화학교가 시계모자 착용의 부작용으로 정신분열이 일어난 아이들을 수용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현 교육 제도와 사회를 비판한다. ‘이카루스 통신’이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며 퍼져나가는 사이, 기우는 지하도시를 탈출해 특수반 아이들과 함께 시계모자에 전파를 보내는 중앙 시계탑을 부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는데.....

## 『우상의 눈물』, (1980 [세계의 문학]), 전상국

---jnyoung9236>>작성, 네이버지식인

새학년이 되어 편반이 끝나자 새로운 담임은 과학 교사답지 않게 적절한 비유까지 곁들어가면서 1년간의 학급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율'과 '공동 운명체'를 강조한다. 그리고 '나'를 임시반장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이 재수파의 리더인 '최기표'의 눈을 거슬리게 한 계기가 돼 나는 강당 뒷편의 으스스한 곳에 끌려가 린치를 당한다. 기표는 병을 깨서 자신의 팔뚝을 그어 피를 흘도록 강요하였고, 나는 바지가 벗겨진 채 다섯 군데나 담뱃불로 지짐을 당하고는 그만 졸도하여 버린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나의 기를 완전히 꺾어 버린다. 나는 나에게 복수를 충동질하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고, 오히려 미리 당했다는 우월감으로 웃음까지 보일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뒤, 가정 방문을 한 담임은 내가 계속 반장을 맡았으면 하였으나 나는 극구 사양하고 대신에 나와 1, 2등을 다투는 라이벌이면서 통솔력도 뛰어난 '형우'를 추천하였다. 담임은 나에게 반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필요한 정보 제공을 부탁하지만, 그런 일도 '형우'가 잘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며 거절한다.

결국 담임은 형우를 반장으로 임명하고, 기표를 달래서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를 부반장에 임명한다. 담임은 기표에 대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도움을 주면서 자기의 뜻대로 선도해 나간다. 그런대로 조용히 지내던 중, 중간고사 때가 되어 반장 '형우'는 재수파들을 구제하

려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모의하고 시험에 응했으나, 기표가 오히려 사실을 감독교사에게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다. 다행히 협조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자수를 하여 이 사건은 조용히 덮여지게 된다. 그러나 기표는 이 일에 대해 놀랐고, 형우를 린치하여 자신의 자존심과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심한 린치에 형우는 일주일 썩이나 입원을 하여서도 학생 주임의 집요한 추궁에 침묵함으로써 기표를 두둔한다. 이런 일이 있는 후부터 형우는 일약 의리의 사나이로 우상이 되어가고, 상대적으로 기표의 존재는 초라하게 전락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번 일이 반장 형우와 담임간에 세워진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동안 기표를 따르던 재수과들도 완전히 와해되고,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 알려지면서 학급회의를 통한 '기표돕기'운동을 벌여서 신문에까지 알려진다. 그 결과 사회 각지로부터 성금과 위문편지가 답지하고 급기야는 영화화하기 위한 시도에까지 이른다.

그렇게 도도하고 안하무인이던 최기표는 형편없이 초라한 몰골로 전락하여 연약하고 내성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다. 학급이 일사불란하게 항해를 계속하던 중 기표가 결석을 하게 되고, 그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기표가 여동생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내놓는다. 그 편지에는 "무섭다, 나는 무서워 살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 [인물의 성격]

■ 나(이유대) → 1인칭 서술자, 객관적 서술로 이중적인 사회의 단면을 노출시키는 인물. 상대방의 심중을 잘 파악하는 자존심 강한 인물.

■ 최기표 → 재수과의 리더로 철저한 악의 화신. 담임과 형우의 주도면밀한 술책에 휘말려 허물어지는 인물.

■ 임형우 → 반장. 담임과 결탁하여 학급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타적이면서도 위선적인 인물.

■ 담임 → 학급 관리에 능숙한 면을 보여주며, 자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선적이면서도 권위적인 인물.

#### [구성 단계]

■ 발단 Ⅱ 임시반장인 나는 기표과에게 린치를 당함.

■ 전개 Ⅱ 형우가 반장이 되고, 반장과 담임은 기표의 비행이 없도록 노력함.

■ 위기 Ⅱ 부정행위를 도움으로써 기표의 자존심을 건드린 형우가 폭행을 당하고 입원하면서 모든 끝내 함구함.

■ 절정 Ⅱ 담임과 반장의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끝내 기표는 무기력한 학생으로 전락함.

■ 결말 Ⅱ 기표는 가출을 하게 되고,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무서워 살 수 없다'는 기표의 목소리를 듣는다.

#### [이해와 감상]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진 '나' 이유대가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아 기표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그를 제압하려는 담임과 실장(형우)을 관찰하는 이야기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교사와 학생들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불량학생이 담임의 치밀한 계획과 조작에 의해서 선도되는 과정을 통해 위선적인 지도의 한계를 노출시키면서 참다운 인간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시키고 있다.

■ 참 인간성에 대한 목마름 →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점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참다운 인간성에 대한 목마름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교실 공간의 정치(지배와 예속이라는 논리) → 인간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가는가 하는 문제를 교실 공간으로 축소하여 보여 주는 작품. 각기 다른 세계관과 인격을 가진 자들이 모여 지배와 예속이라는 정치적 현상이 나타남.

■ 야성과 지성의 권력 다툼 → 원초적인 악의 소유자(기표)와 제도권내에 있으면서 기득권을 가진 자(담임)와의 힘겨룸.

■ 작품의 풍자성 → 악에 대항하는 자의 또 다른 악에 대한 풍자. 최기표의 초라한 몰락에서, '나'는 합법적 권력을 가진 담임과 형우의 교묘하고 위선적 술책이 기표의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핵심사항 정리]

- 갈래 : 단편소설
- 배경 : 시간 - 1970년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출세 지향적인 시대, 공간 - 학교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성격 제시 방법 : 행위에 의한 극적 제시 방법(보여주기)과 관찰자의 분석적 해설에 의한 말하기 방법을 적절히 사용.
- 갈등구조 : 기표와 담임간의 갈등(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 주제 ⇒ 야성보다 더 무서운 지성의 간교함. 호의를 가장한 치밀한 위선의 무서움.